

# 프랑스의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베트남 파병에 대한 인식\*

민 유 기

- I. 들어가며  
II. 드골의 베트남 중립화와 데탕트 추구  
III. 프랑스 언론의 한국군 파병 보도  
IV. 프랑스 외교문서 속의 한국군 파병  
V. 나오며

## I. 들어가며

프랑스인들은 1965년 6월에 실시된 정부 정책 만족도 여론조사에서 드골 대통령의 경제·재정정책에 대해서 만족 35% 불만족 44%, 사회정책에 대해서 만족 32% 불만족 51%라고 응답한 반면, 외교정책에 대해서는 만족 52% 불만족 19%를 표시했다.<sup>1)</sup> 드골은 이처럼 국내정책과 대외정책에서 상이한 평가를 받았다.

드골은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주의적인 통치로 국내정치에 있어서 많은 비판

\* 이 논문은 2011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1-327-A00082).

1) 1966년 1월의 만족도 조사에서도 드골 정부의 경제·재정정책은 만족 20% 불만족 39%, 사회정책은 만족 30% 불만족 52%였으나 외교정책은 만족 54% 불만족 20%였다. 1967년 1월의 만족도 조사에서도 드골 정부의 경제·재정정책은 만족 27% 불만족 37%, 사회정책은 만족 28% 불만족 49%였으나 외교정책은 만족 55% 불만족 15%였다. 대통령직 사임 직전인 1969년 2월의 만족도 조사에서도 드골 정부의 경제·재정정책은 만족 19% 불만족 59%, 사회정책은 만족 31% 불만족 51%였으나 외교정책은 만족 41% 불만족 32%였다. Institut Français d'Opinion Publique, Jean Charlot, *Les français et de Gaulle*(Paris: Plon, 1971), pp. 260-294. 이용재, 『샤를 드골, 현대 대중사회에서의 영웅의 탄생』, 『이화사학연구』 33집(2006), 353쪽에서 재인용.

을 받았다. 그는 학생들과 노동자들의 전면적인 반대에 직면했던 1968년 5월의 위기를 의회 해산과 이어진 총선 승리로 넘겼으나, 1969년 4월 상원과 지방 행정체제 개편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가 불신임되자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그의 외교정책은 재임 기간 내내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는 1958년 6월에 자신에게 비상대권이 부여된 이유이자 1958년 9월에 헌정질서가 의원내각제의 제4공화국에서 대통령중심제의 제5공화국으로 바뀐 이유였던 알제리전쟁(1954-1962)을 국민투표를 거쳐 1962년 에비앙 조약으로 종식시켰다. 식민지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진 드골은 이후 미소 두 강대국이 주도한 냉전질서 아래에서 독자적인 입장을 표방하며 이른바 ‘자주외교’ 노선을 견지했다.

프랑스는 1960년 2월 핵실험에 성공해 미국, 소련, 영국에 이어 네 번째로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다. 이는 프랑스가 미소 양국이 주도한 냉전질서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준 기반이 되었다. 프랑스는 1964년 1월 중화인민공화국을 승인한 첫 번째 서방 자유진영 국가였고 1966년 3월에는 미국의 자의적 운영을 비판하며 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 탈퇴했다. 1966년 6월에는 드골 대통령이 전후 서방 국가원수들 가운데서 처음으로 소련을 방문하여 긴장완화를 추구했다.

드골의 외교정책은 프랑스는 물론 영미권에서도 많은 학자들의 연구주제였다. 지금까지 축적된 연구 성과들 대부분은 드골이 프랑스의 ‘영광(grandeur)’을 드높이기 위해 주도적인 외교정책을 펼치며 1960년대 국제무대에서 테트라트를 추구하고, 프랑스가 미국의 외교정책을 비판하면서 미국의 헤게모니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제사회에 프랑스의 힘을 과시하려 했다고 평가한다.<sup>2)</sup> 1958년 6월 1일부터 1968년 5월 31일까지 10년 동안 드골정부의

2) 드골의 대외정책에 관한 프랑스 학계의 연구 성과로는 다음을 참조하라. Maurice Vaïsse, *La grandeur: Politique étrangère du général de Gaulle 1958-1969* (Paris: Fayard, 1998); Frédéric Bozo, *Deux stratégies pour l'Europe: de Gaulle, les États-Unis et l'Alliance atlantique 1958-1969* (Paris: Plon, 1996); Léo Hamon, René Rémond, Michael Harsgor, Etienne Burin des Roziers, Elie Barnavi, Saul Friedländer, *La Politique étrangère du général de Gaulle* (Paris: PUF, 1985); Jean Touchard, *Le Gaullisme 1940-1969* (Paris: Seuil, 1978). 영미 학계의 연구 성과로는 다음을 참조하라. Christian Nuenlist, Anna Locher, Garret Martin (ed.), *Globalizing de Gaulle: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French Foreign Policies, 1958-1969* (Lexington Books, 2011); Robert O. Paxton, Nicholas Wahl (ed.), *De*

외무부장관을 지낸 쿠브드뮈르빌(Maurice Couve de Murville)은 드골이 국제무대에서 프랑스가 응분의 “지위와 역할”을 되찾기를 원했다고 회고했다.<sup>3)</sup>

드골 시기 프랑스의 대외관계 선행 연구들은 주로 미국과의 갈등 문제, 유럽연합과 관련된 영국이나 서독과의 관계, 소련과의 관계 개선 문제에 집중하고 있고, 아프리카 국가들과 제3세계와의 관계도 일부 연구되었다.<sup>4)</sup> 아시아에 대한 연구는 베트남전쟁 관련 연구가 대부분이다.

제2차 인도차이나전쟁으로도 지칭되는 베트남전쟁에 대한 프랑스의 관심은 지대했다. 베트남을 식민 지배했던 프랑스는 베트남인들의 민족해방전쟁인 제1차 인도차이나전쟁(1946-1954)에서 패배하여 1954년 제네바조약 체결과 함께 철수하였다. 이후 남베트남의 후견자가 된 미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남베트남 주둔 미군이 증가되고, 지엽적으로 전개되던 남베트남과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의 갈등이 1964년의 통킹만 사건과 미국의 북베트남 폭격에 이은 전면전으로 확대되었다. 드골은 1960년대 초부터 미국에 의한 전쟁의 확대에 반대하며 베트남 중립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베트남 중립화를 관철시키기 위한 프랑스의 외교적 노력은 베트남전쟁 기간 내내 계속되었다.<sup>5)</sup>

*Gaullé and the United States: A Centennial Reappraisal* (Bloomsbury Academic, 1994); Philip Cerny, *The politics of Grandeur: Ideological Aspects of de Gaulle's Foreign Policy*(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0). Edward A. Kolodziej, *French International Policy under de Gaulle and Pompidou: The Politics of Grandeur* (Ithaca, 1974), 우리 학계의 기존 연구 성과로는 다음을 참고하라. 문지영, 「드골의 대미외교정책, 1958-1969」, 『프랑스사 연구』 16호(2007); 전재성, 「프랑스 드골 대통령의 자주외교 연구」,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0권 1호(2008); 김영준, 「미국·프랑스의 외교적 갈등에 대한 원인 고찰」, 『유럽연구』 17권(2003).

- 3) Maurice Couve de Murville, *Une politique étrangère: 1959-1969*(Paris: Plon, 1971), p. 15. 드골과 정치가 페르피트, 드골 정부 시기 주미 프랑스 대사였던 알팡의 회고록도 참조하라. Alain Peyrefitte, *C'était de Gaulle*, t.1,2,3(Paris: Fayard, 1994, 1997, 2001); Hervé Alphand, *L'étonnement d'être: journal 1939-1973*(Paris: Fayard, 1977).
- 4) Marie-Pierre Rey, *La Tentation du rapprochement: France et URSS à l'heure de la détente (1964-1974)*(Paris: Publications de la Sorbonne, 1991); Institut Charles de Gaulle, *De Gaulle et le Tiers Monde*(Paris: Pedone, 1984); Centre bordelais d'études africaines, Centre d'étude d'Afrique noire, Institut Charles de Gaulle, *La Politique africaine du général de Gaulle (1958-1969)*(Paris: Pedone, 1980).
- 5) 드골의 인도차이나 중립화 방안에 대한 프랑스 학계의 연구 성과들은 다음을 참조하

한국은 베트남전쟁에 미국 다음으로 많은 병력을 파견한 나라이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 기간을 거쳐 1963년에 대통령에 취임한 박정희는 한미관계의 안정적 유지 강화와 한일관계의 개선을 대외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박정희 정부는 1965년 6월에 체결된 한일협정으로 광복 이후 20년 만에 한일 국교 정상화를 이루었고,<sup>6)</sup> 1964년에 한국군 비전투부대의 베트남 파병에 이어서 1965년부터 전투부대를 베트남에 파병하며 한미관계를 강화시켰다.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에 대해서는 파병 동기, 파병 결정과정, 미국과의 파병 협상, 파병으로 인한 국내정치의 변화, 파병으로 인한 한미관계의 변화 등이 연구되었다. 1960-80년대에는 미국 학자들의 논저들과 한국 국제정치학자들의 영어 논문들이 일부 존재했다.<sup>7)</sup> 이후 미국 국무부 문서들이 공개된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그리고 한국정부의 문서들이 공개된 2000년대부터 기존 연구를 재검토하거나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는 연구 성과들이 많이 축적되었다.<sup>8)</sup> 이들 연구들은 모두 한국과 미국의 사료들

---

라. Philippe Devillers, “La politique française et la seconde guerre du Viet Nam”, *Politique étrangère*, 32<sup>e</sup> année, No. 6(1967); Pierre Journoud, *De Gaulle et le Vietnam (1945-1969)*(Paris: Tallandier, 2011); Christopher E. Goscha, Maurice Vaisse (dir.), *La Guerre du Vietnam et l'Europe 1963-1973*(Bruxelles: Bruylant, Paris: LGDJ, 2003). 영미 학계의 관련 연구 성과들은 다음을 참조하라. Sean J. McLaughlin, “De Gaulle’s peace program for Vietnam: the Kennedy years”, *Peace & Change*, Vol. 36, No. 2(April 2010), pp. 218-261; Fredrik Logevall, “De Gaulle, Neutralization, and American Involvement in Vietnam, 1963-1964”, *Pacific Historical Review*, Vol. 41(February 1992), pp. 69-102; Marianna P. Sullivan, *France’s Vietnam Policy: A Study in Franco-American Relations*(Westport, CT, 1978); Lloyd C. Gardner, Ted Gittinger (ed.), *The Search for Peace in Vietnam 1964-1968* (Texas A&M University Press, 2004); Fredrik Logevall, *Choosing War: The Lost Chance for Peace and the Escalation of War in Vietnam* (Berkeley, CA, 1999).

- 6)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에 대한 프랑스의 인식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민유기, 『프랑스의 1960년대 한국 대외정책 인식: 한일협정을 중심으로』, 『사총』 84호(2015).
- 7)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의 한국군 베트남 파병 관련 연구들은 다음을 참조하라. 홍규덕, 『한국의 베트남 파병결정에 관한 연구현황과 과제』, 『동남아시아연구』 창간호(1992), 231-250쪽.
- 8) 최동주, 『한국의 베트남 전쟁 참전 동기에 관한 재고찰』, 『한국정치학회보』 30권 2호(1996); 박홍영, 『한국군 베트남 파병(1961-1966)의 재검토』, 『국제정치논총』 40집 4호(2000); 최동주, 『베트남 파병이 한국경제의 성장과정에 미친 영향』, 『동남아시아연구』 11권 1호(2001); 한홍구, 『박정희정권의 베트남 파병과 병영국가화』, 『역사비평』

을 기반으로 한 연구들이다.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 관련 기존 연구 성과들은 크게 세 개의 연구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고, 일부 해석상의 쟁점이 존재한다. 첫째 영역은 파병 결정 과정과 관련된다. 이와 관련된 연구들에서는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이 한국과 미국 어느 쪽의 주도권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쟁점, 한국군을 미국의 ‘용병’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한 논쟁이 존재한다. 1980년대 이전 연구들은 대부분 미국의 주도권을 강조하고, 미국의 요청과 압력에 한국이 응했다고 파악한다. 하지만 미국 국무부 문서들과 한국 외교문서들을 분석한 1990년대 이후 연구들은 미국의 요청 이전에 한국이 먼저 파병을 제안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한국의 주도권을 강조하고 있다.<sup>9)</sup> 둘째 영역은 파병의 목적과 동기에 관한 것이다. 관련된 연구들에서 안보 측면을 강조한 해석들은 아시아에서의 공산주의 확대를 막기 위해 그리고 주한 미군의 베트남 이동을 막기 위해 한국이 자진해서 파병을 미국에 제안했다고 파악한다. 경제적 이해관계를 강조하는 해석들은 파병 동기가 한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입장과, 경제적 이익이 파병의 결과이지 동기는 아니라는 입장으로 나누어지기도

62호(2003); 안정애, 「한국군의 베트남 전쟁 파병관련 국내 자료의 종류와 성격」, 『기록학 연구』 9호(2004); 전재성,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와 베트남 파병을 둘러싼 미국의 대한 외교정책」,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6집 1호(2004); 박태균, 「베트남 파병을 둘러싼 한미 협상 과정: 미국 문서를 중심으로」, 『역사비평』 74호(2006); 박태균,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 『역사비평』 80호(2007); 홍석률, 「위험한 밀월-박정희-존슨 행정부기 한미관계와 베트남전쟁」, 『역사비평』 88호(2009); 조재호, 「베트남 파병과 한국경제 성장」, 『사회과학연구』 50권 1호(2011); 마상윤, 「한국군 베트남 파병결정과 국회의 역할」, 『국제지역연구』 22권 2호(2013); 장준갑, 「존슨 행정부 초기의 한미관계(1964-66): 베트남 파병 협상을 중심으로」, 『역사와 담론』 52호(2009).

9) 한국군 베트남 파병이 미국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고 한미 간 협상을 통해 결정되었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Warren T. Nelson, *The Deci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participate in the Vietnam Conflict*(George Washington University, 1981); Jin Ha Suk, James Morrison, *South Korea's Participate in the Vietnam War: A Historiographical Essay*(Kore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1987). 한국군이 ‘미국의 용병(mercenary)’이었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Diane Jones, Michael Jones, “Allies called Koreans: A Report from Vietnam”, *Bulletin of Concerned Asian Scholars*, Vol. 8, No. 2(April-June, 1976), pp. 58-72. 1995년 5월 10일 김숙희 교육부장관은 국방대학원 초청강연에서 “월남전은 용병으로 참전했으므로 올바른 전쟁의 명분을 갖지 못했다”고 발언해 정치적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5월 12일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장관직에서 해임되었다. 『경향신문』, 1995년 5월 13일.

한다. 셋째, 상대적으로 최근 연구 경향으로 파병을 계기로 한국이 추진하려 한 동아시아 집단안전보장 체제 등 냉전질서와 관련된 영역이다.<sup>10)</sup>

자주외교 노선을 통해 냉전의 긴장완화를 추구하던 프랑스는 미국에 의한 베트남전쟁의 확대는 물론이고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다. 이 글에서는 프랑스가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프랑스의 베트남전쟁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었는지를 미국과 프랑스 사료들을 기초로 하여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프랑스의 주요 일간지들이 어떤 시각에서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 관련 보도들을 했는지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외교관들이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과 관련해 본국 외무부에 보낸 외교문서들의 내용을 분석할 것이다. 언론 보도와 외교문서의 내용 분석은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연구 영역인 한미 간 주도권 문제, 파병의 동기, 냉전질서와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 II. 드골의 베트남 중립화와 데탕트 추구

프랑스는 19세기 중반에서 말까지 수차례의 군사원정과 외교적 압박을 통해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를 병합하며 인도차이나 식민지를 건설하였다.<sup>11)</sup> 1858년에 시작된 프랑스의 소규모 베트남 군사원정은 1862년 6월 제1차 사이공조약을 통해 베트남이 남끼<sup>12)</sup> 동부 3성을 프랑스에 할양하며 일단락되었고, 프랑스는 할양받은 지역을 프랑스로 코친차이나로 지칭했다. 프랑스는 불안정한 왕권으로 통치에 어려움을 겪던 캄보디아 국왕과 1863년에 보호조약을 체결해 캄보디아를 프랑스 보호국으로 만들었다. 1867년에는 코친차이나 총독의 군사정복으로 남끼 서부 3성이 프랑스로 합병되었다. 이후 프랑스는 1883년에 베트남 전역을 식민화하려는 대규모 군사원정을 통해 제1차

10) 박홍영, 『한국군 베트남 파병(1961-1966)의 재검토』, 183-184쪽.

11) 프랑스의 인도차이나 식민화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Pierre Brocheux, Daniel Hémy, *Indochine: la colonisation ambiguë, 1858-1954*(Paris: La Découverte, 2001, première édition, 1994); Charles Fourniau, *Vietnam: Domination coloniale et résistance nationale, 1858-1914*(Paris: Les Indes savantes, 2002).

12) 베트남인들은 영토를 남끼(南圻), 중끼(中圻), 북끼(北圻)로 구분하였고 서양인들은 이 지역들을 각각 코친차이나(Cochinchine), 안남(Annam), 톤킹(Tonkin)이라는 명칭으로 불렀으며, 프랑스 식민 통치가 확립된 후 이러한 명칭이 공식적으로 통용되었다.

후에조약을 맺고 베트남을 프랑스 보호국으로 만들었고, 이에 청이 반발하여 프랑스와 청의 전쟁이 1885년까지 이어졌다. 프랑스는 1885년 6월 청과 텐진 조약을 체결해 베트남의 지배권을 확고히 하였다. 1893년에는 라오스를 병합하였다.

제2차 대전이 발발하자 일본은 1940년 6월에 베트남을 차지하였고 1941년에는 호치민이 베트남독립동맹(Viet Minh)을 결성했다. 일본이 패망하자 1945년 9월 호치민은 하노이에서 베트남민주공화국을 수립했으나 프랑스는 식민지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였다. 프랑스 군이 다시 주둔하면서 베트남인들의 저항이 본격화되고 1946년 12월에 제1차 인도차이나전쟁이 발발한다. 베트남의 탈식민지 민족해방전쟁이었던 이 전쟁을 치르며 프랑스군은 1954년 5월 디엔비엔푸(Dien Bien Phu) 전투에서 거의 괴멸을 당했다. 같은 해 7월 체결된 제네바협정으로 프랑스는 베트남에서 철수했고, 캄보디아와 라오스는 중립적 독립국이 되었다. 반면 호치민 세력의 북베트남과 친 서방 남베트남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베트남의 경우 북위 17도선을 경계로 남북으로 분할하고 2년 후인 1956년 7월까지 남북 총선거를 통해 통일정부를 구성하도록 했다. 또한 두 지역 모두 타국과의 군사동맹이나 군비확충이 금지되었다. 프랑스, 베트남민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소련, 영국은 이 협정에 서명했으나 남베트남과 미국은 서명하지 않았다.<sup>13)</sup>

프랑스가 철수한 이후 미국에서 1954년에 귀국한 응오딘지엠(Ngô Đình Diệm)이 1955년 10월에 남베트남에서 베트남공화국을 수립하고 대통령이 되면서 남베트남은 친미국가가 되었다. 지엠 정부가 부패하고 무능하자 베트남 공화국 내 공산주의자들은 민족해방전선(NLF)을 결성했고 호치민 정부가 이들을 지원하면서 베트남민주공화국과 베트남공화국 지지세력 사이에 충돌이 잇달았다. 이런 상황에서 1960년 11월의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케네디는 1961년부터 베트남공화국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다.<sup>14)</sup>

1954년 제네바협정 이후 프랑스는 몇 년 동안 인도차이나 문제에 대해 공

13) 1954년 제네바협정과 관련된 미국 외교문서들은 다음을 보라.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이하 FRUS), 1952-1954, Vol. XVI, *The Geneva Conference*(Washington: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1).

14) Geoffrey Warner, "President Kennedy and Indochina: The 1961 Decisions", *International Affairs*, Vol. 70, No. 4(Oct., 1994), pp. 685-700.

개적인 입장을 표방하지 않았다. “알제리전쟁이 프랑스 국내의 정책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었고,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프랑스는 ‘식민주의자’란 비난을 받으며 고립”되어 있었다.<sup>15)</sup> 그러나 드골이 1958년에 권력을 획득하고 1961년 1월 8일 알제리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국민투표에서 찬성 74.99%를 얻은 후 알제리전쟁 종식을 준비하면서, 프랑스는 대외정책에 자신감을 회복했다. 드골은 베트남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원조가 강화되자 제네바협정의 군사동맹과 군비확충 금지 규정에 기초하여 베트남 중립화 방안을 구상하였다.

프랑스 연구자들은 드골의 베트남 중립화 방안이 프랑스가 제1차 인도차이나전쟁과 알제리전쟁에서 얻은 고통스러운 교훈인, 제3세계 민족해방투쟁을 서방 국가가 무력으로 막아내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한다.<sup>16)</sup> 반면 몇몇 미국 학자들은 중립화 방안이 미국 외교정책을 비판함으로써 프랑스가 냉전질서 아래에서 미국으로부터 독립적임을 과시하기 위해서 정교하게 착상된 전략으로 본다.<sup>17)</sup>

1961년 5월 파리를 방문한 케네디와의 정상회담에서 드골은 베트남에 대한 지원은 군사가 아닌 문화적·경제적·기술적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며, 미군 철수와 베트남 중립화, 베트남인들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미국에 제안했다.<sup>18)</sup> 하지만 미국은 이 제안이 실현되면 베트남공화국 내에서 민족해방

15) Philippe Devillers, “La politique française et la seconde guerre du Viet Nam”, p. 567.

16) Maurice Vaïsse, *La grandeur*, pp.523-525; Jean Lacouture, “De Gaulle et Indochine”, Léo Hamon, René Rémond, Michael Harsgor, Etienne Burin des Roziers, Elie Barnavi, Saul Friedländer, *La Politique étrangère du général de Gaulle*, p.146; Claude Chayet, Philippe Devillers, “De Gaulle et l’Indochine”, Institut Charles De Gaulle, *De Gaulle en son siècle*, t. 6, *liberté et dignité des peuples*(Paris: Plon, 1991), p.472.

17) Marianna P. Sullivan, *France’s Vietnam Policy*, p.88; Anne Sa’adah, “Idees simples and idees fixes: De Gaulle, the United States, and Vietnam”, Robert O. Paxton, Nicholas Wahl (ed.), *De Gaulle and the United States*, p.298.

18) 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Commission des Archives Diplomatiques, *Documents diplomatiques français 1961*, t. 1 (*1<sup>er</sup> janvier-31 mai*)(Paris: Imp. Nationale, 1997), pp.676-679, 701; Charles de Gaulle, *Mémoires d’Espoir: le Renouveau, 1958-1962*(Paris: Plon, 1970), pp.268-269; *FRUS, 1961-1963*, Vol. XIII, *Western Europe and Canada*(Washington: United States Government

전선 공산주의자들의 자유로운 활동과 세력 확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미국이 후견한 지엠 정권이 부정부패로 갈수록 인기를 상실하자 1963년 8월 29일 드골은 국무회의에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비판하고 중립화가 문제해결을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고 옹변하였다. 이 국무회의에서 언급된 베트남 중립화 방안은 프랑스 언론을 통해 세상에 공개되었다.<sup>19)</sup>

프랑스는 베트남 중립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중화인민공화국과 1964년 1월 27일 외교관계를 회복했다. 1월 30일 대통령궁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드골은 “중국을 배제하고서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중립화를 절대로 생각할 수 없다”며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이유를 설명했고, “중립화란 국제적으로 보장되며 내부의 상호 무력행동을 배제함과 동시에 외부의 다양한 개입도 배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sup>20)</sup> 드골은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만약 미국이 지금 베트남 철수를 결정하지 못한다면, 전쟁은 10년간 지속될 것이고, 이 전쟁은 프랑스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았던 알제리전쟁과는 달리 미국의 체면 상실 없이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sup>21)</sup>

케네디의 암살로 1963년 11월에 미국 대통령직을 승계한 존슨은 1964년 초부터 프랑스가 주장하는 베트남 중립화는 해결책이 될 수 없고, 군사행동 강화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판단했다. 존슨은 1964년 4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동맹국들에게 베트남전쟁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며 이른바 ‘더 많은 깃발(more flags)’ 정책을 표방했다. 1964년 7월 23일 드골이 제네바협정 10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다시 베트남 중립화를 강조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국들 간의 회담을 개최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미국의 반응은 냉담했다.<sup>22)</sup>

---

Printing Office, 1984), p. 663. 케네디 시기 드골의 인도차이나 중립화 평화구상에 대해서는 Sean J. McLaughlin, “De Gaulle’s peace program for Vietnam: the Kennedy years”, *Peace & Change*, Vol. 36, No. 2(April 2010), pp. 218-261.

19) Alain Peyrefitte, *C’était de Gaulle*, t. 2, p. 649; *Le Monde*, le 30 août 1963; *FRUS, 1961-1963*, Vol. IV, *Vietnam, August-December 1963*(Washington: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4), p. 55.

20) Charles de Gaulle, *Discours et messages*, t. 4, *pour l’effort, août 1962-décembre 1965*(Paris: Plon, 1970), p. 180.

21) Alain Peyrefitte, *C’était de Gaulle*, t. 2, p. 687.

22) Charles de Gaulle, *Discours et messages*, t. 4, pp. 234-236; *FRUS, 1964-1968*,

베트남전쟁의 양상은 1964년 8월 2일과 4일 통킹만 사건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미국 의회는 8월 7일 통킹만 결의를 통해 존스 대통령에게 군사행동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후 몇 차례 이루어진 북베트남에 대한 미 공군의 폭격은 1965년 2월부터 본격화되었으며 3월부터는 미국 지상군이 대규모로 파견되었다. 베트남전쟁이 확대된 이후에 드골은 프랑스가 베트남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중재자가 되기를 희망했다. 당시 프랑스의 주미 대사였던 알팡(Hervé Alphand)은 1965년 여름에 드골이 “프랑스는 베이징, 모스크바, 하노이, 워싱턴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에 베트남 문제와 관련해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고 회고하였다.<sup>23)</sup>

베트남 중립화와 조속한 평화회담 개최를 희망하며 드골은 공산진영과 관계 개선에 힘썼다. 1965년 4월에 소련 외무부장관이 파리를, 10월에는 프랑스 외무부장관이 모스크바를 방문해 베트남전쟁에 대해 논의했다. 소련은 서방진영 내에서 반미성향을 지닌 드골의 ‘특별한 입장’을 자신과 베트남민주공화국의 입장을 선전하기 위해 이용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드골이 주장한 베트남 중립화에 동의하였다.<sup>24)</sup> 드골은 1965년 7월에 측근인 문화부장관 앙드레 말로를 베이징에 보내 주언라이, 마오쩌둥 등과 베트남 중립화 방안을 논의하게 하였다. 하지만 소련과 달리 베트남과 국경을 맞대고 있던 중화인민공화국은 드골의 베트남 중립화 방안을 거부했다.<sup>25)</sup>

드골은 중립화 방안을 비현실적이라며 관심도 보이지 않고 전쟁을 확대한 미국에 불편함을 자주 표출했고, 1966년 3월에 프랑스의 북대서양조약기구 탈퇴를 선언했다. 1966년 7월 라오스 국왕의 파리 방문 환영사에서 드골은 베트남전쟁을 비난하며, 인도차이나에서의 모든 군대의 철수, 제네바협정에 기초한 라오스, 캄보디아, 남북 베트남 4개국의 완전한 독립과 중립화를 강조했다. 이 환영사에서 드골은 “세계를 양분하는 적대적인 두 개의 이데올로기

Vol. I, *Vietnam 1964*(Washington: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2), p. 470.

23) Hervé Alphand, *L'étonnement d'être*, pp. 459-460.

24) Ilya V. Gaiduk, *The Soviet Union and the Vietnam War*(Chicago: Ivan R. Dee Publisher, 1996), pp. 77-78.

25) Qiang Zhai, “China’s Response to French Peace Initiative”, Lloyd C. Gardner, Ted Gittinger (ed.), *The Search for Peace in Vietnam*, pp. 278-289; Qiang Zhai, *China and the Vietnam Wars, 1950-1975*(Chapel Hill, NC, 2000), p. 162.

에 이끌려, 미국이 프랑스가 철수한 지역에 자신의 정치적 권위와 군대가 개입해야만 한다고 생각”한 것이 베트남전쟁의 원인이라고 발언하였다.<sup>26)</sup> 드골의 미국 비판은 1966년 9월 1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10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그가 행한 대중연설에서 절정에 달했다. 이 연설의 내용을 일부 살펴보자.

1954년 제네바협정 이후 캄보디아는 용감하고 현명하게 이 협정을 따르는 중립정책을 택하였고, 이때부터 프랑스의 책임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다. 중립정책만이 인도차이나가 지배와 이데올로기 대립을 위한 투쟁의 장이 되는 것과 미국이 개입하려는 유혹을 예방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었다. 중립정책으로 여러분의 나라는 주권국으로 육체와 영혼을 보호할 수 있었던 반면에, 남베트남에서는 미국의 정치적 권위가 확립되고 군대가 주둔하게 되었으며, 이런 이유로 민족적 저항의 형태로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다. 전쟁이 시작되자 무력 사용에 대한 환상이 원정군의 지속적인 증가와 전쟁 확대를 가져왔다. 점점 더 중국에 가까운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점 더 소련을 자극할 수 있는 이 같은 전쟁의 확대는 유럽,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국민들에게 점점 더 비난을 받고 있고, 궁극적으로 세계평화를 위협한다.<sup>27)</sup>

위 연설 내용처럼 드골은 프랑스의 철수 이후 미국이 남베트남에 개입한 것이 베트남전쟁의 원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1954년 제네바협정을 기초로 외세 개입이 배제된 베트남의 중립화와 베트남인들의 자기결정을 베트남 전쟁의 해결책이라고 믿었다. 1961년 드골과 케네디 회담에서 드골이 미국에 처음 제안했고 언론을 통해 1963년 8월 말에 세상에 알려진 베트남 중립화 방안은 미국과 남북 베트남 3자간 전쟁 종식을 약속한 1973년 1월 파리협정 체결 때까지 프랑스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 III. 프랑스 언론의 한국군 파병 보도

한국은 남베트남에 1964년 9월에 의무부대와 태권도 교관들을, 1965년 3월에는 건설지원단을 보냈고 1965년 10월에 처음으로 전투부대를 파병했다.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 현황은 <표 1>과 같다.

26) Charles de Gaulle, *Discours et messages*, t. 5, *vers le terme, janvier 1966-avril 1969*(Paris: Plon, 1970), p. 66.

27) *Ibid.*, p. 81.

〈표 1〉 한국군 베트남 파병현황<sup>28)</sup>

1차 파병	1964년 9월 11일	제7후송병원(제1이동외과병원으로 개칭): 130명 태권도 교관단: 소령 1명, 위관장교 9명
2차 파병 (건설지원단)	1965년 3월 10일 (비둘기부대)	육군공병대대, 공병야전정비반, 육군수송중대, 해병공병중대, 상륙작전합정(LST) 1척: 1,022명 LST 2척 추가 및 자체지원 병력: 약 950명
3차 파병 (1차 전투부대)	1965년 10월 3일 (청룡부대) 1965년 10월 16일 (맹호부대)	해병 제2연대 4,130명(청룡부대, 갑란에 배치, 여단으로 개편시 4,218명으로 증원) 수도사단 13,672명(맹호부대, 꾸이봉에 배치)
4차 파병 (2차 전투부대)	1966년 9월 25일-30일 (백마부대)	수도사단(26, 28, 29, 30연대), 제9사단
4-1차 파병	1967년 8월	해병 및 지원부대 2,963명 1개 보병대대(제5대대 957명) 증편 해병여단을 해병사단으로 개편
5차 파병	1968년 여름 예정	안보위기로 파병 무산

한국군은 1964년 존슨의 동맹국 참전 요청에 따라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미국의 7개 동맹국 가운데 가장 많은 병력을 파병했다. 참전 국가들의 파병 병력현황은 〈표 2〉와 같다.

미국 다음으로 많은 병력을 베트남에 파병한 한국군의 소식은 국제적인 관심사가 되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1960년대 프랑스의 3대 일간지로 간주되는 보수적 성향의 『르피가로』(*Le Figaro*), 중도 좌파 성향의 『르몽드』(*Le Monde*), 공산당 기관지 『뤼마니테』(*L'Humanité*)를 1964년부터 1968년까지 검토한 결과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과 베트남에서의 활동 관련 보도들은 많지 않았다. 베트남전쟁의 전개과정과 프랑스의 베트남 중립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들, 미국과 유럽 각지에서의 반전운동과 관련된 연이은 소식들과 분석기사들 사이에서 한국군 관련 기사는 이따금씩 발견될 뿐이다.<sup>29)</sup>

28) 박태균,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 295쪽.

29) 미국의 대표적 일간지인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의 인터넷 기사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면 한국군 베트남 파병과 베트남에서의 한국군 활동에 관한 상당히 많은 기사들이 검색된다.

〈표 2〉 국가별 연도별 파병 병력현황<sup>30)</sup>

연도	총계	미국	한국	태국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타이완	스페인
1964	17,670	17,200	140	0	17	200	30	20	0
1965	183,425	161,100	20,541	16	72	1,557	119	20	0
1966	441,194	388,568	45,605	244	2,065	4,525	155	23	13
1967	557,958	497,498	48,839	2,205	2,020	6,818	534	31	13
1968	614,051	548,383	49,869	6,005	1,576	7,661	516	29	12
1969	545,453	475,678	49,755	11,568	189	7,672	552	29	10
1970	412,088	344,674	48,512	11,586	74	6,763	441	31	7
1971	210,898	156,975	45,694	6,265	57	1,816	60	31	0
1972	67,392	29,655	37,438	38	49	128	53	31	0

1964년 9월 한국군 최초의 파병이었던 의무부대와 태권도 교관 파병은 프랑스 언론에서 다루지 않았다. 프랑스 3대 일간지들은 8월 2일과 4일 북베트남군이 공해상에 정박 중인 미군 함정을 두 차례 공격했다고 미국이 발표하 이른바 통킹만 사건 이후 긴박하게 돌아갔던 국제정세와 베트남 현지의 소식들을 9월까지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이런 상황에서 소규모 비전투 부대의 한국군 파병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 같다.

그런데 통킹만 사건에서 두 번째 공격은 조작된 것이었다. 1971년 6월 13일 『뉴욕타임스』의 기자가 미 국방부 문서들을 검토하여 두 번째 공격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기사화하였고, 2001년 미국 국가안보국(National Security Agency)의 역사연구원 한요크(Robert J. Hanyok)가 비밀문서들을 분석해 국가안보국 내부 학술지에 이를 확인하는 논문을 발표했다. 『뉴욕타임스』는 2005년 10월 31일 한요크의 논문 내용을 소개하였고 결국 통킹만 사건 관련 비밀문서들이 그해 11월에 비밀이 해제되면서 공개되었다.<sup>31)</sup>

30) Stanley Robert Laren, James Lawton Collins, Jr., *Allied Participation in Vietnam* (Washington D.C.: Departemet of Army, 1985), p. 23. 국방부, 『파월한국군전사』 제10권(군사편찬위원회, 1985), 528쪽에서 재인용.

31) Robert J. Hanyok, “Skunks, Bogies, Silent Hounds, and the Flying Fish: The Gulf of Tonkin Mystery, 2-4 August 1964”, *Cryptologic Quarterly*, Vols. 19/20,

프랑스 언론은 미국이 통킹만 사건을 발표한 직후부터 의혹을 기사화했다. 『뤼마니테』는 1964년 8월 6일에 “통킹만에서의 두 번째 사건은 완전한 창작극”이라는 북베트남의 입장을 기사화했고, 9월 21일에는 통킹만 사건이 미국의 “위험한 실수인가 혹은 고의적 도발인가?”라는 제목의 장문의 기사를 실었다.<sup>32)</sup> 『르몽드』도 8월 6일자에 미국의 공식 발표 내용과 함께 북베트남 정부가 통킹만 사건이 “미 제국주의자들의 완전한 창작극”이라고 주장했음을 보도했다.<sup>33)</sup> 보수적 신문 『르피가로』는 미국의 발표 내용만을 실은 반면, 공산당 기관지 『뤼마니테』는 사건이 조작되었다는 북베트남 정부의 발표를 전적으로 신뢰했고, 중도 좌파 성향의 『르몽드』는 미국과 북베트남의 입장을 동시에 전달했다.

세 일간지가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을 처음으로 보도한 것은 2차 파병인 건설지원단 비둘기부대 파병이 결정된 1965년 1월과 비둘기부대가 한국을 출발한 3월이다. 1월 8일 한국 정부는 베트남에 약 2천 명을 파병한다고 발표했고, 1월 26일 국회에서 파월동의안이 가결되었다.<sup>34)</sup> 『르피가로』 1월 9-10 일자는 단신으로 한국의 베트남 파병을 보도하며 이미 140명의 의무부대가 활동하고 있음을, 『르몽드』는 1월 12일자에 한국 정부의 2천 명 파병 결정 소식을, 1월 27일자에는 국회의 파월동의안 가결 소식을 실었고, 『뤼마니테』는 사이공에 1천8백 명의 한국군이 도착할 예정임을 3월 15일자 미국의 북쪽 소식을 전하는 기사에서 언급하였다.<sup>35)</sup> 모두 사실 소개에만 그친 단순 보도들이다. 한국군 2차 파병인 건설지원단 파병은 1차 파병과 달리 통킹만 사건 이후 미국의 북쪽으로 전쟁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단신으로나마 프랑스 언론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뤼마니테』는 한국군 전투부대가 파병되기 시작한 1965년 가을부터 단신

Nos. 4-1(Winter 2000-Spring 2001); “Vietnam Archives: Pentagon Study Traces 3 Decades of Growing U.S. Involvement”, *The New York Times*, June 13, 1971; “Robert J. Hanyok: His United States National Security Council study on Tonkin Gulf Deception”, *The New York Times*, October 31, 2005.

32) *L'Humanité*, le 6 août 1964; “Dangereuse erreur ou provocation délibérée?”, *L'Humanité*, le 21 septembre 1964.

33) *Le Monde*, le 6 août 1964.

34) 『동아일보』, 1965년 1월 8일, 1월 26일.

35) *Le Figaro*, les 9-10 janvier 1965; *Le Monde*, le 12 janvier 1965, le 27 janvier 1965; *L'Humanité*, le 15 mars 1965.

이나 베트남전쟁 관련 다른 분석 기사 내에서 한국군 전투부대 소식을 자주 전했다. 10월 11일자 기사는 “미국이 남베트남에 한국인 용병 1만5천 명을 보냈다”는 제목부터 한국이 미국의 영향력 하에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 같은 시각은 1966년 10월 31일 방한한 존슨 대통령 소식을 전하며 11월 1일자에 실은 “미국의 51번째 주 한국”이란 제목의 칼럼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난다.<sup>36)</sup>

반면에 『르피가로』는 1965년 한국의 전투부대 파병 소식을, 『르몽드』는 이 소식뿐 아니라 1966년과 1967년의 추가적인 한국군 전투부대 파병 소식을 별다른 논평 없이 보도했다.<sup>37)</sup> 이 두 신문에 실린 분석 기사들은 한국이 파병 과정에서 주도권을 행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르피가로』 1965년 5월 19일자는 방미한 박정희가 “서방진영이 한국전쟁 때와 마찬가지로 베트남에 개입해야 한다”고 발언한 내용을 소개했고, 존슨이 1968년 3월 31일 기자회견에서 북베트남과의 평화협상을 제안한 것에 대해 한국이 반발하자 미국이 한국을 “달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보도했다.<sup>38)</sup> 『르몽드』 1966년 11월 2일자는 존슨의 방한 관련 기사들에서 한국이 추가 파병 계획이 없음을 미국에 알렸다고 보도하면서 파병 문제 협상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시각을 보여주었다.<sup>39)</sup>

또한 『르피가로』와 『르몽드』는 1965년 5월 20일자에 박정희가 방미하여 한국군 파병 문제를 논의한 이후 미국이 한국의 경제개발을 위해 1억5천 달러 지원을 결정했다고 보도했고, 『르몽드』는 1965년 8월 3일자에 한국의 전투부대 파병 대가로 미국이 한국군 5개 사단의 현대화를 지원하기로 한 것을 보도하면서 한국이 베트남 파병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sup>40)</sup>

36) “Les Américains envoient une division de mercenaires sud-coréens(15,000 soldats) au Sud-Vietnam”, *L'Humanité*, le 11 octobre 1965; “La Corée du sud 51<sup>e</sup> (État Américain)”, *L'Humanité*, le 1 novembre 1966.

37) *Le Figaro*, le 4 septembre 1965. *Le Monde*, le 20 mai 1966, le 27 juin 1967, le 18 novembre 1967.

38) *Le Figaro*, le 19 mai 1965, le 19 avril 1968.

39) *Le Monde*, le 2 novembre 1966.

40) *Le Figaro*, le 20 mai 1965; *Le Monde*, le 20 mai 1965, le 3 août 1965.

#### IV. 프랑스 외교문서 속의 한국군 파병

박정희는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11월 미국을 방문해 케네디 대통령에게 베트남 파병 의사를 밝혔으나 미국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sup>41)</sup> 하지만 한국은 1962년 5월 11일 건군 이래 처음으로 장성을 단장으로 하고 고급 장교 10여명으로 구성된 군사고문단을 남베트남에 파견했다.<sup>42)</sup> 앞서 언급한 것처럼 존슨 대통령은 1964년에 4월 23일에 ‘더 많은 깃발’ 정책을 표방했고 미 국무부는 5월 8일에 한국을 포함한 25개국에 남베트남 지원을 요청했다.<sup>43)</sup> 하지만 ‘더 많은 깃발’ 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군대를 파병하겠다고 나서는 주요 서방 국가는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전부터 전투부대 파병을 원했던 한국의 제안을 바로 수용하기에 부담을 느낀 미국은 한국에 의무부대 파병을 제안했고, 남베트남 정부로 하여금 공식 요청서를 한국에 보내도록 했다.

주한 프랑스 대사 샹바르(Roger Chambard)는 1964년 5월 19일에 ‘한국과 베트남의 군사협력 가능성’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본국 외무부에 보냈다. 5월 12일 한국이 의무부대의 베트남 파병을 결정한 것을 설명하며 샹바르는 1950년대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을 제안했고, 1962년에 “군사혁명정부가 게릴라전에 대한 한국군의 경험을 베트남군에게 전수해 줄 군사고문단을 사이공에 파견”했으며, 김종필의 구상은 “대만, 필리핀, 한국군으로 이루어진 외인부대를 구성해” 남베트남을 돕는 것이라고 기술하였다.<sup>44)</sup>

41) 박정희는 방미해 케네디와 1961년 11월 14일 가진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잘 훈련된 백만 명의 군사가 있으니 미국의 승인과 지원만 있으면 베트남에 군사를 파견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으나 케네디는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Memorandum of Conversation, Washington, November 14, 1961. Kennedy Library. National Security Files. Countries Series, Korea, Park Visit, 11/16-12/61. 전재성,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와 베트남 파병을 둘러싼 미국의 대한 외교정책」, 80쪽에서 재인용.

42) 이 사실은 당시 『경향신문』 1962년 5월 12일자 특종보도를 통해 알려졌고 이날 오후 박병권 국방장관은 군사고문단이 아니라 “상례적인 군사시찰”을 위해 파견했다는 공식담화를 발표했다.

43) 『동아일보』, 1964년 5월 9일.

44) Archives du 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de la France, Fonds: Asie- Océanie, Sous-fonds: Corée du Sud Période 1956-1967, Série 12 Politique Extérieure(이하 AMAEF, Corée du Sud, 1956-1967), Carton 12-23-1, vol. 28(1) Politique Extérieure: Lignes politiques, programmes, interviews, reactions coréennes aux événements de

한국군의 1차 파병이 한국의 오래전부터의 파병 시도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1964년 8월 초의 통킹만 사건으로 전쟁이 확대되자 한국 정부는 1964년 11월과 12월 미국에 전투부대 파병 의사를 전달했으나 미국은 여전히 전투부대 대신 후방 지원을 담당할 비전투부대 파병을 요청했다. 주한 프랑스 대사가 1965년 1월 18일에 작성해 본국에 보고한 보고서는 “한국 합참의장과 주한미군사령관 사이 파병 규모와 조건에 관한 수차례 논의들을”<sup>45)</sup> 거쳐 1964년 12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추가 파병이 결정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1965년 1월 초 남베트남의 공식 요청서를 받은 후 1965년 1월 26일 국회에서 파월 동의안이 가결되어 건설지원단인 비둘기 부대 파병이 확정되었다.

한국군 전투부대의 파병 결정은 1965년 5월 방미한 박정희와 존슨의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되었다. 프랑스 외교문서는 전투부대 파병이 박정희의 방미 전인 4월에 이미 결정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sup>46)</sup> 1965년 4월 1일과 2일 미국 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에서 한국, 호주, 뉴질랜드에 대한 전투부대 파병 요청이 결정되고,<sup>47)</sup> 전투병 파병에 긍정적이었던 나라들에서 파병 규모와 조건 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박정희는 전투부대 파병을 결심하고 방미하여 한국군 파병에 대한 미국의 한국 지원 규모를 최대한 얻어내고자 했다. 한국군 전투부대의 파월동의안은 8월 13일 국회에서 가결되었고 10월에 제1차 전투부대인 청룡부대, 맹호부대가 파병되었다.

1965년 봄부터 지상전이 펼쳐졌기 때문에 미국은 미군을 계속 증가시키며 12월에 한국에도 전투부대의 추가 파병을 요청했다.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전투부대 추가 파병의 대가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요구했

Saigon(이하 Carton 12-23-1, vol. 28(1)). Éventualité d'une aide militaire sud-coréenne au Viet-Nam, le 19 mai 1964.

45) AMAEF, Corée du Sud, 1956-1967, Carton 12-23-1, vol. 28(2) Politique Extérieure: Lignes politiques, programmes, interviews, envoi de troupes coréennes au Vietnam(janvier 1965)(이하 Carton 12-23-1, vol. 28(2)). De l'envoi d'un contingent de l'armée coréenne au Vietnam, le 18 janvier 1965.

46) AMAEF, Corée du Sud, 1956-1967, Carton 12-23-1, vol. 28(3) Politique Extérieure: Lignes politiques, programmes, interviews, rapport avec les pays du Tiers-Monde(이하 Carton 12-23-1, vol. 28(3)). De l'envoi d'une unité combattante coréenne au Vietnam, le 28 juin 1965.

47) 전재성,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와 베트남 파병을 둘러싼 미국의 대한 외교정책』, 82쪽.

으며, 주한 미국대사 브라운(Winthrop G. Brown)과 한국 외무부장관 이동원의 최종협상을 통해서 1966년 3월 7일 브라운 각서가 교환되었다. 브라운 각서는 미국이 한국군 현대화를 위한 장비와 항공기 제공, 파병 한국군에 장비와 경비 제공, 근무수당 및 전사자 보상금 지불, 파병 한국군 필요물자의 한국 발주, 한국의 베트남 필요물자 공급 확대, 한국 경제발전을 위한 미국의 추가 차관 지원 등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군수협조와 경제협조의 구체적 내용이 담겨있다.<sup>48)</sup> 이후 1966년 3월 22일 파월동의안의 국회 가결을 거쳐 9월에 제2차 전투부대인 백마부대가 파병되었다.

주한 프랑스 대사는 한국의 주요 정치지도자들을 면담하며 파악한 베트남 전쟁 관련 한국 지도층의 의견을 1967년 3월 8일자로 본국에 보고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미국이 베트남전쟁에서 발을 빼기 위해 서서히 북베트남과 협상을 진행하려는 상황에서 김종필이 “미국이 북베트남과 개최할 협상에 한국이 참여하지 못할까 우려하고” 있다고 적혀있다.<sup>49)</sup>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병력을 참전시킨 한국은 베트남전쟁 종식을 위한 회담에 적극 참여하려는 의지를 지니고 있었으나 실제로 평화회담에 간여하지는 못했다.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과 관련한 한미 논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주도권을 행사한 것은 한국이었다. 한국이 먼저 파병을 원했으나 미국이 수용하지 않다가 뒤늦게 참전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주도권을 지니고 미국과 협상하여 다양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한국이 베트남 파병을 통해 다양한 경제적 이익을 본 것은 여러 공식 자료들과 기존 연구들에서 확인된다. 프랑스 외교문서들도 이를 재확인 시켜주는데 파병의 중요한 동기가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이었고, 한국이 미국과의 파병 협상 과정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며 보다 폭넓은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여 이를 얻어냈으며, 파병으로 인해 결과적으로도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 프랑스 외교관들의 인식이었다.

한국 정부가 건설지원단 파병을 결정하고 아직 국회에서 동의안이 채택되기 전인 1965년 1월 12일에 주한 프랑스 대사는 본국에 보낸 보고서에서, 한

48) 브라운 각서에 따른 미국의 한국군 현대화 지원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오홍국, 「한국군의 베트남전쟁 참전과 국방현대화 과정 분석: 1960년대 중반 ‘브라운 각서’의 추진 결과를 중심으로」, 『군사논단』 67호(2011).

49) AMAEF, Corée du Sud, 1956-1967, Carton 12-23-1, vol. 29(4) Politique Extérieure: Relations économiques avec le Vietnam(이하 Carton 12-23-1, vol. 29(4)). Opinion de dirigenats coréens sur la guerre du Vietnam, le 8 mars 1967.

국군의 베트남 파병이 “아시아에서 공산주의 위협의 증대를 예방”하고, 일부 주한 미군의 베트남 재배치를 막으며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확실히 하는 것 외에도, “건설, 생산, 수출이라는 당면과제에 도움”이 된다고 한국 정부가 판단하고 있다고 기술했다.<sup>50)</sup> 1월 18일자 보고서 역시 한국군 파병이 남한 내 미군철수 예방책, 미국의 원조 증대, 베트남과의 교역 증대라는 이익을 가져다준다고 파악하고 있으며, 한국이 베트남 파병을 통해 주한 미군의 지위와 분담금 협상 그리고 한국군의 현대화에서 커다란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sup>51)</sup> 1965년 1월 25일자 보고서에서 주한 프랑스 대사는 “한국은 일본이 한국전쟁에서 그러했듯이, 베트남전쟁에서 경제적 이득을 불생각”이라고 분석했다. 같은 해 3월 17일자 보고서에서는 한국 미국 베트남 삼각 교역을 통해 한국이 경제적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강조한다.<sup>52)</sup>

상바르는 1966년 2월 2일자 프랑스 외무부로 보낸 전보문에서 한국이 추가 전투부대 파병 협상에서 “한국군 세 개 사단의 현대화, 파병군인의 수당 인상, 주한 미군 유지를 위한 한국 분담금 증가 중지, 베트남에 한국 상품의 수출을 유리하게 해줄 미국의 지원 등을 요구”했다고 알렸고,<sup>53)</sup> 2월 22일자 긴급전보에서는 “미국이 한국의 요구 대부분을 수용했다”고 보고했다.<sup>54)</sup> 2월 25일자 긴급전보에서도 미국은 한국의 안보와 관련해 이전까지의 지원방식을 쇠신하고 미군에 대한 한국의 재정 부담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고, 한국군 세 개 사단에 대한 현대화를 시행하고, 해군에 세 척의 구축함을 제공하고 공군 장비를 증강시키며, 베트남 파병 한국군 수당을 25% 증가시키고,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교역에서 유리한 조약의 체결을 추진하는 등 한국의 2차

50) AMAEF, Corée du Sud, 1956-1967, Carton 12-23-1, vol. 28(2) Conférence de presse du Président Park Chung-hi, le 12 janvier 1965.

51) AMAEF, Corée du Sud, 1956-1967, Carton 12-23-1, vol. 28(2) De l'envoi d'un contingent de l'armée coréenne au Vietnam, le 18 janvier 1965.

52) AMAEF, Corée du Sud, 1956-1967, Carton 12-23-1, vol. 28(2) Envoi d'un contingent coréen au Vietnam, le 19 janvier 1965. Carton 12-23-1, vol. 28(3) Commerce triangulaire Corée-Vietnam-États-Unis, le 17 mai 1965.

53) AMAEF, Corée du Sud, 1956-1967, Carton 12-23-5, vol. 35(1) Politique Extérieure: Relations États-Unis/Corée du Sud, Envoi de troupes coréennes au Vietnam(이하 Carton 12-23-5, vol. 35(1)). Télégramme, le 2 février 1966.

54) AMAEF, Corée du Sud, 1956-1967, Carton 12-23-1, vol. 29(1) Politique Extérieure: la Corée du sud et le conflit vietnamien(이하 Carton 12-23-1, vol. 29(1)). Télégramme Urgent, le 25 février 1966.

전투부대 파병에 따른 미국의 경제 지원 요청 대부분을 승낙했다며 브라운 각서가 공포되기 10일 전에 그 주요 내용을 본국에 보고하였다.<sup>55)</sup>

브라운 각서 내용을 본국에 보고하는 1966년 3월 10일자 주한 프랑스 대사의 보고서에는 한국군의 제2차 전투부대 파병에 대한 보답으로 미국이 1965년 박정희의 방미 당시 약속한 1억5천만 달러 차관 외에 추가 지원을 약속했으며, 1966년부터 1천5백만 달러가 베트남에 대한 한국의 수출증대를 위해 지출될 예정이고, 향후 한국은 이 분야에서 “더 많은 이득을 얻어낼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sup>56)</sup> 또한 1967년 4월 3일자 보고서는 “남베트남 정부가 6월에 사이공 수자원 및 전기회사에 고용된 프랑스 기술자들과의 계약을 끝내고 한국정부에 이들을 대체할 한국 기술자를 보내달라고 요구”했다고 적고 있다.<sup>57)</sup>

한국은 베트남 파병을 계기로 아시아 각국과의 외교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기를 희망했다. 이는 아시아에서 반공을 기치로 한 집단안보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국은 남베트남, 대만,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호주, 뉴질랜드 등의 아시아 태평양 8개국 외무부장관회담을 제의하였다.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이 회담 제의에 대해 주한 미국 대사는 주한 프랑스 대사에게 “한국이 주도한 이 회담에 대해 미국은 반대하지 않을 것”이고, 이 회담을 통해 “한국 정부의 위신이 신장될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sup>58)</sup> 하지만 이 회담을 통해 한국이 냉전질서 하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려는 구상은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다. 미국은 베트남 파병에 대한 보답의 일종으로 한국의 외교적 역량이 어느 정도 신장되는 것을 허용했지만, 미국과 일본이 배제된 회담이 성과를 거두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일본은 이 회담에 일본이 배제된 것에 대해 미국에 불만을 표현했다고 일본 주재 프랑스 대사가 1965년 3월 5일자 전보를 통해 프랑스 외무부에 보고하였다.<sup>59)</sup>

55) AMAEF, Corée du Sud, 1956-1967, Carton 12-23-5, vol. 35(1). Télégramme Urgent, le 28 février 1966.

56) AMAEF, Corée du Sud, 1956-1967, Carton 12-23-5, vol. 35(1). Contre-partie américaine à l'envoi de renforts coréens au Vietnam, le 10 mars 1966.

57) AMAEF, Corée du Sud, 1956-1967, Carton 12-23-1, vol. 29(4). Conversations économiques vietnamo-coréennes, le 3 avril 1967.

58) AMAEF, Corée du Sud, 1956-1967, Carton 12-23-1, vol. 28(1). Réunion des Ministres des Affaires Etrangères à Séoul en avril 1965, le 3 novembre 1964.

59) AMAEF, Corée du Sud, 1956-1967, Carton 12-23-1, vol. 28(3). Télégramme,

냉전질서 하에서 북한과 북베트남은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을 강하게 비난하였다. 체코슬로바키아의 북한과 북베트남 대사관은 프라하에서 1965년 1월 15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남베트남에 한국군 2천명을 파병하는 것이 “제네바 협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한국의 베트남 파병이 “미국 매파의 강요에 의한” 것이므로 “미국이 남 베트남 인민에 대한 전쟁의 지속적인 확장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며 미국과 한국을 비난했다고 프라하의 프랑스 외교관이 1965년 1월 21일자로 본국 외무부에 보고했다.<sup>60)</sup>

주한 프랑스 대사는 1965년 2월 3일자 전보에서 김일성이 한국 국회에서 파월 동의안이 통과되자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 결정이 “미 대사관의 명령을 받은 꼭두각시 모임들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북한은 “공동의 적 미 제국주의와 투쟁하는 데 있어서 가능한 물질적·정신적인 모든 원조를 베트남에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프랑스 외무부에 보고했다.<sup>61)</sup> 북베트남 외무부는 한국군의 제2차 전투부대 파병에 대해서 “미국의 용병인 한국군의 남베트남 파병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이 성명서는 북베트남 하노이에 존재했던 프랑스 연락사무소가 본국 외무부에 보낸 1966년 3월 10일자 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다.<sup>62)</sup>

프랑스는 베트남전쟁 내내 군사행동 대신 정치적 협상을 통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베트남중립화 방안의 실현을 위해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했다. 따라서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 특히 전투부대 파병에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전투부대 파월동의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1965년 8월 13일 소식을 전하는 8월 18일자 보고서에서 주한 프랑스 대사는 “이 결정은 프랑스, 영국, 비동맹 국가들이 한국에 대해 가졌던 공감대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sup>63)</sup>

---

Tokyo, le 5 mars 1965.

60) AMAEF, Corée du Sud, 1956-1967, Carton 12-23-1, vol. 28(2). Participation de soldats Sud-Coréens aux opérations militaires du Sud-Vietnam, Conférences de presse des Ambassadeurs de la République Démocratique du Vietnam et de la République Démocratique populaire de Corée, le 21 janvier 1965.

61) AMAEF, Corée du Sud, 1956-1967, Carton 12-23-1, vol. 28(2). Télégramme, le 3 février 1965.

62) AMAEF, Corée du Sud, 1956-1967, Carton 12-23-1, vol. 29(1). Envoi de renforts sud-coréens au Vietnam, le 10 mars 1966.

63) AMAEF, Corée du Sud, 1956-1967, Carton 12-23-1, vol. 28(3). Vote par l'Assemblée Nationale coréenne concernant l'envoi d'une division au Vietnam, le

상바르가 1965년 8월 2일에 보낸 보고서에서도 “한국군 전투부대 파병이 인도차이나에 북한의 유사한 개입을 가져 올 수 있고, 한국이 작년부터 정치적 우호적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는 제3세계 많은 국가들의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sup>64)</sup> 북한 정부는 1965년 3월 25일에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에 무기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물질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고 의용군을 보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상바르가 1965년 3월 28일자 전보로 본국에 알렸다.<sup>65)</sup> 북한은 실제 1967년부터 68년까지 북베트남에 공군 조종사들을 보냈다.<sup>66)</sup>

한국 국회에서 제1차 전투부대 파병동의안이 통과되고 며칠 지나지 않은 1965년 8월 19일 프랑스 주재 한국 대사는 프랑스 외무부를 방문해 한국군의 전투부대 파병 결정을 알리며 “한국 정부가 베트남에 전투부대를 파병하는 것을 프랑스 정부가 이해해 줄 것을 희망”했다.<sup>67)</sup> 1966년 제2차 전투부대 파병이 결정되자 한국의 외무부 장관은 주한 프랑스 대사관을 방문해 대사와

18 août 1965.

64) AMAEF, Corée du Sud, 1956-1967, Carton 12-23-1, vol. 28(3). Controverse sur l'envoi de forces armées coréennes au Vietnam, le 2 août 1965.

65) AMAEF, Corée du Sud, 1956-1967, Carton 12-23-1, vol. 28(3). Télégramme, le 28 mars 1965. 북한 고위층이 의용군을 보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언한 소식은 1965년 7월 19일자 보고서에, 북한 정부가 1965년 8월 7일 미국에 의한 전쟁확대를 비난하며 북베트남에 물질적·도덕적·군사적 지원을 할 의사가 있다고 발표한 소식은 같은 해 8월 11일자 보고서에, 조선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 1967년 5월 23일자 사설에 실린 북한의 북베트남을 지원 결정 소식은 같은 해 5월 31일자 보고서에 소개되어 있다. AMAEF, Corée du Sud, 1956-1967, Carton 12-23-1, vol. 28(3). Déclarations nord-coréennes au sujet de l'envoi de force au Vietnam, 19 juillet 1965; Déclarations nord-coréennes à la suite du renforcement des troupes américaines au Vietnam, 11 août 1965. AMAEF, Corée du Sud, 1956-1967, Carton 12-23-1, vol. 29(4). Protestation du gouvernement de Corée du Nord contre l'escalade américaine au Vietnam, 31 mai 1967.

66) Merle Pribbenow, “The 'Ology War: technology and ideology in the defense of Hanoi, 1967”, *Journal of Military History*, Vol. 67, No. 1(2003) pp.183-184; “North Korea fought in Vietnam War”, *BBC News*, 31 march 2000; “N Korea admits Vietnam War role”, *BBC News*, 7 July 2001; “North Korea honours Vietnam War dead”, *BBC News*, 12 July 2001.

67) AMAEF, Corée du Sud, 1956-1967, Carton 12-23-1, vol. 28(3). Ambassade de Corée, Paris, le 19 août 1965.

면담하며 한국의 입장을 전했다. 상바르는 3월 3일자로 본국 외무부에 보낸 전보를 통해 자신이 이 면담에서 한국의 외무부 장관에게 “1954년 제네바 협정에 따른 해결이 프랑스 정부의 입장임을 상기”시켰고, “한국의 참전 의지 증가가 분쟁의 평화적 해결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했으며, “한국군의 베트남 추가 파병에 프랑스의 호의적인 시선을 기대하지 말라”고 설명했다고 보고했다.<sup>68)</sup>

## V. 나오며

프랑스는 제1차 인도차이나전쟁에서 패배하며 1954년에 제네바협정을 통해 베트남에 대한 식민 지배를 종식하였다. 제네바협정은 인도차이나의 중립화, 외국 군대의 주둔과 군비확충 금지, 베트남의 북위 17도선 분할을 규정했다. 프랑스가 철수한 남베트남에는 친미정권이 들어서고 이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확대되면서 남북 베트남 지지 세력들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어 제2차 인도차이나전쟁인 베트남전쟁이 시작되었다. 1964년 8월 통킹만 사건을 계기로 미국이 전면적으로 확장시킨 베트남전쟁에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많은 병력을 파병하였다. 이 글에서는 프랑스가 베트남전쟁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지를 프랑스 언론 보도들과 외교문서들을 통해 분석하였다.

1958년 알제리전쟁이 야기한 위기 속에서 권력을 획득한 드골은 1969년에 대통령직을 사임할 때까지 국제무대에서 프랑스의 영광과 위신을 높이는 것을 외교정책의 목표로 삼았다. 그는 1954년 제네바협정의 원칙에 기초하여 베트남 중립화를 구상하고 이를 미국에 제안하였다. 하지만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과 뒤를 이은 존슨 대통령은 드골의 구상이 비현실적이라 판단하고 관심을 두지 않았고 베트남전쟁을 확대시켰다. 드골은 미국에 의한 베트남전쟁 확대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 미국이 주도한 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 탈퇴하고 중국, 소련 등과 관계개선을 하며 베트남의 중립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은 프랑스가 보기에 달갑지 않은 것이

68) AMAEF, Corée du Sud, 1956-1967, Carton 12-23-5, vol. 35(1). Télégramme, le 3 mars 1966.

었다. 프랑스 주요 일간지 가운데 『뤼마니테』는 한국군의 파병이 미국의 압력과 요청에 의한 일종의 ‘용병’이었다는 논조를 펼쳤는데 이는 당시 북베트남이나 공산진영 국가들의 일반적인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반면에 『르몽드』와 『르피가로』는 미국의 요청이 있었을지라도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발휘했고, 파병으로 한국이 경제적 이익을 거두었다는 공통적인 인식을 보여주었다. 물론 두 신문 사이에 차이점도 존재한다. 『르몽드』는 국제정세와 관련된 보다 객관적인 시각의 관련 기사들을, 『르피가로』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보다 많은 관심을 표방하는 관련 기사들을 내보냈다.

프랑스 외교문서들은, 한국과 미국의 외교문서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이 미국의 요청 이전에 먼저 파병을 제안했었고, 미국의 요청 이후에는 미국과 파병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그러므로 베트남 파병 한국군을 단순하게 미국의 용병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물론 한국이 먼저 제안했고 파병의 주도권을 지니고 있었을지라도 미국에 많은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여 얻어냈기에 넓은 의미에서는 용병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능하다. 전쟁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역사적·도덕적 지탄의 대상이다. 하지만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이 당시 한국이 처해 있었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한국인들의 집단적 노력들 가운데 하나였다는 상황논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프랑스 외교문서들은 파병으로 인한 한국의 경제적 이익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공산주의 팽창을 저지한다는 주장은 프랑스 외교문서들에서 한국 정부의 공식발표 내용을 소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면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베트남전쟁은 북베트남의 남베트남에 대한 전면전 개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통킹만 사건을 통해, 그것도 절반이 거짓이었던 사건을 통해 미국이 북베트남에 대한 전면전을 개시하면서 확대되었다. 동맹국들의 참전을 원했던 미국이 호소한 ‘더 많은 것발’ 정책에 호응한 주요 서방 국가가 전혀 없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한국정부가 밝혔던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에 대한 동기들 가운데 하나였던 아시아에서의 공산주의 세력의 팽창을 저지한다는 동기는 국제무대에서 강한 설득력을 지니기 어려웠다.

프랑스 외교관들은 파병을 계기로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려 했던 지역 안전보장 체제가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이 북한과 중국 등 공산진영의 강한 반발을 불러와 냉

전을 강화시킨다고 인식했다. 냉전질서를 완화시키기 위해 베트남 중립화를 주창하던 프랑스는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을, 미국이 주도한 베트남 전쟁 자체를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이것이 주한 프랑스 대사가 한국의 외무부 장관과 면담하면서 한국군의 전투병 파병에 대한 프랑스의 호의적인 시선을 기대하지 말라고 말했던 연유이다.

베트남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20세기 후반의 세계사를 좌지우지한 냉전질서와 그 속에서의 긴장완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사건이다. 지금까지 다루어지지 않았던 프랑스 사료를 기초로 하여 분석된 프랑스의 한국군 베트남 파병에 관한 인식이 세계사적 차원의 냉전사 이해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경희대학교 사학과)

〈투고일자 2015. 1. 24 심사일자 2015. 2. 6 게재확정일자 2015. 2. 10〉

**주제어** : 한국군 베트남 파병(Korean Troop Dispatch to Vietnam), 드골(Charles de Gaulle), 냉전(Cold War), 베트남전쟁(Vietnam War), 데탕트(Detente)

## 〈국문초록〉

### 프랑스의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파병에 대한 인식

민 유 기

이 글의 목적은 베트남전쟁과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 문제에 대해 프랑스가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를 프랑스 외교문서와 언론 자료를 통해 분석하는 것이다.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에 대해 『르몽드』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뤼마니테』는 미국의 용병이라는 부정적 시각에서, 『르피가로』는 한국의 경제적 이익을 강조하는 시각에서 보도하였다.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에 대해서 프랑스 외교문서들은 한국의 주도적 입장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군 파병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크다고 인식하였다. 하지만 한국이 추진한 동남아 집단안보 체제 구상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베트남 파병으로 제3세계가 한국에 반감을 갖게 되었다고 파악하였다. 드골 대통령은 미국에 의한 베트남전쟁의 확산을 비판했고 베트남 중립화를 제안하였다. 따라서 프랑스는 한국의 베트남전쟁 참전에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였다. 프랑스는 1960년대 중반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을 통해 동아시아에 냉전 질서가 강화되었다고 인식하였다.

**〈Résumé〉****La conscience des Français sur la guerre de Viêtnam et  
l'envoi des troupes coréennes au Viêtnam**

You-Ki MIN

Cet article a pour but d'examiner la conscience des Français sur la guerre de Viêtnam et sur l'envoi des troupes coréennes au Viêtnam. Concernant l'envoi, *Le Monde* était relativement objectif. Tandis que *L'Humanité* était négative en les considérant comme mercenaires embauchés par les Américains, *Le Figaro* a souligné la bénéfique économique obtenue par les Coréens. Les documents diplomatiques français soulignent que les Coréens ont pris l'initiative sur cet envoi, et qu'ils ont gagné un grand profit économique. Cependant, le projet sur le système de sécurité collective de l'Asie du Sud-Est a eu peu de résultat. De plus, le tiers-monde a fini par avoir de l'hostilité pour la Corée. De Gaulle a critiqué l'élargissement de la guerre de Viêtnam à l'initiative américaine, et proposé la neutralisation vietnamienne. Donc, la France a maintenu la conscience critique sur l'envoi des troupes coréennes en la considérant comme une cause aggravante de la guerre froide à l'Asie du Sud-Est.

**〈Summary〉****The French Perception of the Vietnam War and the  
Korean Troop Dispatch to Vietnam**

You-Ki MI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observe the position of France in relation to the Vietnam War and the Korean Troop Dispatch to Vietnam. Concerning the Korean Troop Dispatch, *Le Monde* reported objectively, *L'Humanité* expressed negative opinions by labelling the soldiers as mercenaries for the US, while *Le Figaro* emphasized the economic benefits of South Korea. The French diplomatic papers emphasized the leading role of South Korea in the Korean Troop Dispatch to Vietnam, and noted the economic benefits of South Korea. But the idea of a regional security system for Southeast Asia had very little effect and the Third World began to regard South Korea with hostility. De Gaulle criticized the escalation of the Vietnam War by USA and proposed the neutralization of Vietnam. So France did maintain a relatively critical view on Korean involvement in Vietnam war. Ultimately, the French opinion was that the Korean Troop Dispatch to Vietnam had contributed to the reinforcement of the Cold War order in East Asia.